

“남편 친구의 전 부인이 자꾸 남편에게 연락합니다”

남편 친구의 전 부인이 이혼한 뒤 꾸준히 남편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친구의 이혼한 전 부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계속 모른척하고 참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자신을 7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한 8년차 부부라고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가 있다. 같은 동네에서 쭉 성장한 친구들은 서로의 부인들과도 나이가 비슷해 자주 만나서 어울리는 사이다. 그런데 그 중 한 부부가 최근 이혼을 하면서 말 못하고 꿩끙 앓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생겨났다.

A씨는 “이혼한 친구 전 와이프 B씨가 자꾸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인터넷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건 어떻게 하냐고 도움을 청한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해 이혼하기 전에도 B씨는 자신이 이사하는 집 화장실 수리하는 것을 A씨 남편에게 요청한 적 있었다. 당시 A씨는 “그 여자는 남편이 없나? 자기 남편한테 달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오빠가 가느냐?”며 “같이 유가 없지 않나?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하느냐며 기어코 B씨 집에 가 도움을 줬다. 결국 A씨 부부는 이 사건으로 큰 싸움까지 벌였다.

이후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던 중에 최근 또 한 번 A씨를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가족끼리 기분 좋게 외식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그 여자로부터 또 전화가 와서 컴퓨터의 무슨 설정을 어떻게 하냐고 물더라”며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



끊자마자 남편에게 화냈다”고 말했다.

화가 난 A씨가 “그 여자 왜 그러나? 왜 자꾸 오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느냐? 나는 너무 싫다!”고 말하자 남편은 “모르겠다. 왜 자꾸 전화하는지 나도 모른다”고 회피할 뿐이었다.

A씨는 남편 친구와 이혼해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B씨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다.

그는 “이걸 답답해하는 제가 이상한 거나”며 “자꾸 남의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저 여자 심리가 너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A씨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뭐하나”, “이혼한 친구 와이프랑 연락을 왜 하나”, “즐기는 것 같다”, “저렇게 싫다면 남편이 안 해야지”, “집으로 오게 하는 건 선 넘었다”, “번호 차단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hutterstock

동서장례



Henry H. Lee
이효섭

*Funeral Director, FDR4701
장례지도사
*Embalmer, EMB9702
시신방부사
*Funeral Insurance 4787740
장례보험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장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화장 | 매장 | 자연장

경력: 10년 이상 장례지도 시신방부사
미국 장의사, 로즈힐묘지 근무

저서: 이게 우리 엄마야 맞아?
미국 장례 상식

John 3:16

714.951.2520
장의사 이효섭

FD2495 Cypress, CA

www.unicaresurgery.com

애나하임

쾌적한 병원시설에서 만족한 의료기술을 경험하십시오.

UNICARE SURGERY CENTER



**미국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와
진료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 시술을 해드립니다.**

각종 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보험, 기독의료상조



UNICARE
SURGERY CENTER

714-332-5000

1741 W. Romneys Dr. #B, Anaheim, CA 92801

